

로마가 비전을 수립한다 - 번호 6

재림교회 역사 속 예언 해석 논쟁: 다니엘 11장 36절을 둘러싼 유라이어 스미스와 제임스 화이트 간의 갈등 이해

Jeff Pippenger
2024-08-14

우리는 1798년부터 오늘날까지 재림주의의 역사 속에서 발생해 온 여섯 갈래의 예언적 논쟁을 다루고 있다.

"역사와 예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오류 사이에 오래 지속되어 온 투쟁을 묘사한다. 그 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반복될 것이다. 오래된 논쟁들이 되살아나고, 새로운 이론들이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예언을 믿고 그 성취에 있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역할을 해 온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안다. 그들은 순금보다 더 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처음 가진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바위처럼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선택된 메시지, 2권, 109.

이전 글에서는 로마 권세에 관한 첫 번째와 마지막 논쟁을 다루었다. 이제 우리는 유라이어 스미스와 제임스 화이트 사이에서 일어난 논쟁을 다루겠다. 유라이어 스미스는 36절에 자신의 '사적 해석'을 삽입했다.

36절. 그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요,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들 위에 자신을 크게 하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기이한 말들을 할 것이며, 진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형통하리니, 이는 작정된 것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여기서 소개된 왕은 직전에 언급된 동일한 권세, 곧 교황권을 가리킬 수 없다. 그 권세에 적용하면 제시된 조건들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Uriah Smith, Daniel and the Revelation, 292.

스미스는 전절의 세력이 '교황 로마'라고 인정했지만, 36절의 특징들은 교황 로마를 식별하는 예언적 특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은 거짓이다. 1863년의 반역에서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가 제쳐졌고, 그러므로 하박국의 두 표에 있는 '일곱 때'의 도해도 거절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1843년 도표와 1850년 도표는 모두 도표의 한가운데에 '일곱 때'를 제시하며, 두 도해 모두 '일곱 때'의 선의 중심에 십자가를 배치한다. 1856년에 '일곱 때'에 관한 새 빛이 도래했고 이후에 그것이 거절되었을 때, 그것은 하박국의 두 표에 대한 거절이자, 두 도표가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었음을 매우 분명히 밝히는 예언의 신의 권위에 대한 거절을 의미했다.

화이트 자매에 따르면 사탄의 마지막 기만은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첫 번째 기만도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무력화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또한 두 개의 도표에 담긴 기초 진리들, 더 구체적으로는 일곱 때를 동시에 거부하는 것을 나타냈다.

1863년의 반란 때, 1863년 위조 도표를 만든 이는 다름 아닌 유라이어 스미스였는데, 그 도표는 '일곱 때'의 선을 제거했다. 1863년까지 유라이어 스미스는 '일곱 때'의 빛에 눈을 감았고, 다니엘이 지적하는 두 가지 '진노'가 있음을 보지 못했다. 그 두 가지 진노는 이스라엘 북왕국과 유다 남왕국을 향한 '일곱 때'를 나타낸다. 첫째는 북쪽의 열 지파를 대상으로 기원전 723년에 시작되어 1798년에 끝났고, 둘째는 기원전 677년에 시작되어 1844년에 끝났다.

가브리엘은 마라 환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니엘서 8장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났고, 그의 사역과 관련하여 1844년에 대한 두 번째 증거를 제시했다. 다니엘서 8장의 2300년은 1844년에 끝났지만, 북왕국과 남왕국에 대한 두 번의 진노 중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끝났다.

그가 이르되, 보라, 내가 진노의 마지막 때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네게 알리리라. 이는 정한 때에 그 끝이 이르리라. 다니엘 8:19.

최후의 결말은 최초의 결말을 전제한다. 두 가지 진노 중 마지막 것은, 곧 '일곱 때'를 달리 표현한 것인데, 1844년에 끝났고, 첫 번째 진노는 1798년에 끝났다. 교황권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고 스미스가 주장했던 그 구절이,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될 해를 특정했다.

그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며, 스스로 높아 자기를 모든 신들 위에 크게 하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놀라운 말을 할 것이요, 진노가 마칠 때까지 형통하리니, 이미 작정된 것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다니엘 11:36.

36절의 '왕'은 '진노가 성취될 때까지 형통하리라.' 교황권이 36절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속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한 같은 책에서, 스미스가 다니엘서 8장 23절과 24절에 관해 무엇을 쓰는지 주목하라.

23절.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에, 범법하는 자들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사나운 용모를 가졌고 난해한 말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24절. 그의 권세는 강하겠으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는 놀랍게 멀하고, 형통하며, 임의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5절. 또한 그의 계책으로 꾀가 그의 손에서 번성하게 하고, 그는 마음에 스스로를 높이며, 평화로 많은 사람을 멸하리라. 그는 또 통치자들의 통치자에게 맞서 일어나나,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꺾이리라.

이 권세는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그들의 통치가 막바지에 이르는 무렵에, 염소 왕국의 네 분할을 계승한다. 물론 이것은 9절과 그 이후에 나오는 작은 뿔과 동일하다. 9절에 대한 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것을 로마에 적용하면, 모든 것이 조화롭고 분명해진다.

'사나운 얼굴을 한 왕.' 모세는 바로 이 같은 권세가 유대인들에게 내릴 징벌을 예언하면서, 그것을 '사나운 얼굴을 한 민족'이라고 부른다. 신명기 28:49, 50. 전투 대열에서 로마인들만큼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민족은 없었다. '난해한 말들을 깨닫는 자.' 방금 언급한 그 성경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의 언어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는 유대인들과 관련하여 바빌로니아인이나 페르시아인, 또는 그리스인들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갈대아어와 그리스어는

팔레스타인에서 어느 정도든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틴어는 그렇지 않았다.

“범법자들의 죄악이 총만에 이르렀을 때.” 줄곧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억압자들 사이의 관련성이 계속해서 주목된다. 그들이 포로로 팔려간 것은 그의 백성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계속되자 더 엄중한 벌이 임했다. 유대인들은 민족으로서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갔을 때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적이 결코 없었다.

“강하나,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다.” 로마인들의 성공은 상당 부분 동맹국들의 지원과 적들 사이의 분열 덕분이었고, 로마인들은 이를 언제나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교황 로마 또한 자신이 영적 통제를 행사하던 세속 권력을 통해 강력했다.

‘그는 놀랍도록 멀하리라.’ 주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멀하는 데 능한 자들’에게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때 유대인 110만 명이 학살된 일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무섭게 확증한 것이었다. 그리고 로마는 두 번째, 곧 교황권의 국면에서 5천만 명의 순교자를 죽게 한 책임이 있었다.

‘또한 그의 정책을 통해서도 그는 간계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로마는 간계를 동원한 정책으로 다른 모든 세력들 가운데서 두드러졌으며, 그로써 여러 민족을 자기 지배 아래에 두었다. 이는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모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처럼 평화로 많은 이들을 멀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는 그 총독들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 판결을 내림으로써 군주 중의 군주를 대적하여 일어섰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질 것이다’라는 표현은 이 권세의 멸망을 2장에 나오는 형상을 치는 사건과 동일시한다. 유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계시록, 202-204.

스미스는 그 본문에서 두 차례,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의 예언적 특징들이 서로 교환 가능하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그것들이 다니엘 2장의 철과 진흙의 혼합처럼 로마가 두 국면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화이트 자매는 그 혼합을 교권과 정권의 상징으로 규정한다. 스미스가 다루는 구절들에서 다니엘은 로마가 “형통하며 행할 것”이고, 또 로마가 “그의 손에서 궤계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다. 그러고서 스미스는 36절에서 “분노가 마칠 때까지 형통할” 그 “왕”이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모두의 예언적 특징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그는 36절에 나타난 로마의 어떤 특징도 교황 권세를 가리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로마를 ‘환상을 세우는 강도들’로 동일시하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스미스를 인용했으며, 14절에 나오는 네 가지 예언적 특징 중 하나는 로마가 스스로를 높인다는 것이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남방 왕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네 백성 가운데의 강포한 자들도 그 이상을 세우려고 스스로 높아질 것이나, 그들은 넘어질 것이다. 다니엘 11:14.

스미스는 36절의 왕에 대한 묘사가 교황권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앞서 14절에서 자기를 높이는 존재가 로마라고 옹호했다. 그런데 36절의 그 왕은

“스스로를 높일 것이다.” 바로 그 동일한 왕은 36절에서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놀라운 말들을 할 것이다.” 다니엘서에서는 교황권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여 큰 말을 할 것”이라고 하며,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황권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모독한다.

또 그에게 큰 말과 모독을 말하는 입이 주어졌고, 마흔두 달 동안 계속할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여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려고 그의 입을 열었다. 요한계시록 13:5, 6.

교황권에 대한 모든 예언적 서술은 36절에서 확인된다.

그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며, 스스로 높아 자기를 모든 신들 위에 크게 하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놀라운 말을 할 것이요, 진노가 마칠 때까지 형통하리니, 이미 작정된 것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다니엘 11:36.

인간 주석가들은 종종 신뢰하기 어렵지만, 많은 재림교 주석가들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죄의 사람’을 언급할 때 의역한 것이 바로 36절이었다는 명백한 진리에 증언한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교가 일어나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은 오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예배받는 모든 것에 대적하고 그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낸다. 데살로니가후서 2:2, 3.

36절에는 ‘그가 자기를 높이며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바울은 ‘죄의 사람이 나타나고,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리니; 그는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경배되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이고 대적하는 자’라고 말한다. 분명히 스미스는 36절의 왕이 36절에 이르기까지의 구절들에서 논의되어 온 왕과 다르다고 주장할 예언적 권위가 없었다. 문법적으로도 그는 자신의 잘못된 적용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었으며, 36절이 교황권의 어떤 특징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그의 주장은, 사적 해석을 세우려는 시도에서 성경을 왜곡한 것이었다.

또한 우리에게서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 이는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날이 새고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그러하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한 것이라. 베드로후서 1:19-21.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세월 동안 스미스의 적용이 옳은지 그른지에 관해 이를 다룬 재림교 신학자, 목회자, 저자들이 많이 있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호주 출신 목회자 루이스 웨어는 스미스의 거짓된 예언 모델에 반대하는 데 자신의 사역 대부분을 바쳤다. 그가 반대한 이유는 스미스가 결국 45절에서 그의 끝에 이르는 그 왕을 터키로 지목했기 때문만은 아니었고, 스미스의 체계가 아마겟돈에 대한 잘못된 적용도 낳았기 때문이었다. 1980년대 무렵 한 재림교 저자가 ‘재림교인들과 아마겟돈, 우리가 예언을 오해했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했다. 저자의 이름은 도널드 맨셀이며, 그 책은 지금도 구할 수 있다.

맨셀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추적하면서, 두 전쟁이 임박한 것으로 보일 때마다 재림교 전도자들이 터키가 실제 예루살렘으로 진군한다는 것을 아마겟돈과 세상 종말의 징조로 삼는 스미스의 잘못된 해석을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교인 명부를 통해, 각 전쟁이 가까워질수록 스미스의 결함 있는 아마겟돈 관점에서 비롯된 전도자들의 예언적 강조에 근거해 많은 영혼이 재림교회 교인으로 편입되었음을 입증한다.

각 전쟁이 끝나고 그 잘못된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교회는 스미스가 만들어낸 예언적 모델을 통해 얻었던 신도 수보다 더 많은 신도를 잃었다.

스미스가 밀러주의자들의 근본적 메시지를 거부하고, 다니엘서 36절부터 45절에 대한 자신의 사적 해석을 기꺼이 주창하려 했기 때문에, 스미스의 논리는 당대의 사건들에 근거한 예언적 모델을 만들어냈다.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절에서 최후를 맞는 왕을 둘러싼 스미스와 제임스 화이트의 논쟁에서, 제임스 화이트는 스미스의 모래 위에 세워진 예언적 토대를 간명하게 드러내는 논리를 제시했다. 화이트는 “예언이 역사를 만들어내지만, 역사가 예언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고 가르쳤다.

양차 대전 이전에 활동했던 재림주의 전도자들은 역사의 전개를 활용해 스미스의 결함 있는 아마겟돈 예언 모델을 제시했고, 전쟁으로 치닫던 시기에는 그들의 사역이 매우 축복받은 듯 보였으나, 그 예언 모델이 사적 해석에 근거한 것임이 입증되자 결과적으로 순손실을 낳았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썩은 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베어져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마태복음 7:15-20.

스미스가 36절에서 왕에 대한 자기만의 예언 모델을 주창하려는 의지는 여섯째 재앙과 아마겟돈을 잘못 적용하는 결과도 낳았다.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유프라테스 강에 쏟으니 그 강물이 말라 동방의 왕들이 지나갈 길이 준비되었다. 또 나는 용의 입에서와 짐승의 입에서와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는 그들이 이적을 행하는 악령들이어서 온 땅의 왕들, 곧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려 함이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았다. 요한계시록 16:12-16.

앞서 지적했듯이, 여섯째 재앙은 인류의 은혜의 시간이 닫힌 후에 오므로, 그 안에 포함된 "옷을 지키라"는 경고는 미가엘이 일어서고 인류의 은혜의 시간이 닫히며 첫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 시험 문제를 가리켜야 한다. 여섯째 재앙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활동을 드러내는데, 이들은 머지않아 닥칠 일요일 법령에서 하나로 뭉치는 삼중 연합이다. 그 삼중 연합은 현대 로마이며, 현대 로마의 삼중 연합을 식별하고 확립하는 상징은 "네 백성의 약탈자들"로, 그들은 "이상을 세우려고 스스로를 높이다가" "넘어진다."

여섯째 재앙의 경고는, 그것이 이해되면 영혼이 자신의 옷을 지키게 하지만, 그것을 거절하면 영혼을 벌거벗은 채로 남겨 두는데, 이는 라오디게아인의 다섯 가지 속성 중 하나이다. 그 경고를 확증하는 상징은 스스로를 높이다가 결국 넘어지는 '네 백성의 약탈자들'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환상이 없으면 멸망한다고 말했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은 멸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잠언 29:18.

히브리어 단어 "perish"는 "벌거벗게 하다"를 의미하며,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다.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벌거벗고 다녀 자기의 부끄러움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스미스는 북방왕에 관해 틀렸고, 그 거짓된 예언적 토대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벌거벗음을 초래하는 예언적 적용을 그가 전개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주님의 입에서 토해 버림을 당하는 라오디게아인들을 상징한다.

스미스는 여선지자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에 맞서, 다니엘 11장의 북방의 왕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잘못된 비정을 거리낌 없이 주장했다. 재림교 역사학자들과 화이트 자매는 그들의 유명한 견해 차이를 다룬다. 엘렌 화이트는 다니엘 11장에서 북방의 왕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도록 한 일에 대해 남편과 스미스 둘 다를 꾸짖었다. 1844년 대실망 이후 나온 재림교 최초의 출판물에서 제임스 화이트는 이렇게 썼다:

나는 1844년 일곱째 달에 예수께서 일어나 문을 닫으시고,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께 나아오셨다고 전적으로 믿는다. 누가복음 13:25; 마태복음 25:10; 다니엘 7:13, 14 참조. 그러나 다니엘 12:1의 미가엘이 일어서는 것은 다른 목적을 위한 또 다른 사건으로 보인다. 그가 1844년에 일어나신 것은 문을 닫고, 아버지께 나아가, 그의 나라와 다스릴 권세를 받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미가엘의 일어서는, 악인의 멸망과 그의 백성의 구원 가운데서,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왕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미가엘은 11장에 나오는 마지막 권세가 그 끝에 이르고, 그를 도울 자가 하나도 없을 때 일어나실 것이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짓밟는 마지막 권세다. 그리고 참된 교회가 여전히 온 그리스도교 세계에 의해 짓밟히고 내쫓김을 당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압제적 권세는 아직 '그의 끝'에 이르지 않았고, 미가엘도 아직 일어서지 않으셨다. 성도들을 짓밟는 이 마지막 권세는 요한계시록 13:11-18에 나타난다. 그의 수는 666이다. 제임스 화이트, 작은 무리에게 드리는 말씀, 8.

스미스가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권세' 주제에 대해 소위 '새 빛'을 제시했을 때, 제임스 화이트는 스미스의 적용을 새 빛이 아니라 기초에 대한 공격으로 보았다. 다니엘 11장에서 북방 왕을 로마로 보는 문제를 둘러싸고 유라이어 스미스와 제임스 화이트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은 특정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으며, 예언을 연구하는 우리로서는 로마라는 상징과 관련된 재림교회 역사상의 다른 논쟁들과 함께 이것들을 종합해 보아야 한다.

그러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적 해석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그 사적 해석을 적용하려면 단순한 문법을 왜곡해야 한다는 점인데, 스미스는 36절의 모든 예언적 특징이 로마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법적 구조상 36절의 왕이 앞선 본문에 나타난 왕과 동일해야 한다는 요구도 무시했다.

또 다른 것은 그 사적 해석이 근본 진리들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것은 그 사적 해석이 예언의 영의 권위를 거부함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로마에 관한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이, 인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 사람이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예언적 모델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것은 그의 사적 해석을 공개적으로 퍼뜨리려는 의지였다. 또 다른 것은 그 사적 해석이 항상 '새 빛'으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 모든 특징들은 '네 백성의 약탈자들'에 관한 현재의 논의 속에 드러나 있다.

"네 백성을 약탈하는 자들"을 지목했던 로마의 첫 번째 논쟁으로 예표된 로마의 마지막 논쟁이 Uriah Smith와 James White의 논쟁의 예언적 전개와 함께 결합될 때, 우리는 한 부류가 근본 진리를 거부하는 사적 해석 위에 그들의 예언적 모델을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근본 진리들을 거부하는 것은 그 근본 진리들을 확고히 옹호하는 예언의 영의 권위를 자동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부류의 사람들은 또한 그 가르침이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어떤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려 할 것이다.

1844년 직후, 재림운동의 제1세대에서 로마를 둘러싼 또 다른 논쟁이 제기되었다. 그 논쟁은 재림운동의 제3세대에서 그릇된 견해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일었다. 우리는 지금 'line upon line' 모델에서 검토하고 있는 여섯 가지 라인 가운데 네 번째로 'daily'에 관한 논쟁을 다루겠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의 논쟁의 네 번째 줄기를 다루기 전에, 이전 글에서 다니엘서 11장 10절을 다루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10절은 또한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숨겨진 역사와 직접 연결하지만, 그 진리의 줄기는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바를 벗어난다."

유라이어 스미스는 1863년에 일곱 때를 거부하는 일을 주도했다. 그는 1856년에 리뷰에 실린, 하이럼 에드슨이 집필한 해당 주제의 기사들에서 제시된 그 주제에 대한 지식의 증가를 이미 거부했었다. 스미스가 일곱 때를 제시한 운동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이후에 바로 그 주제에 대한 지식의 증가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갖는 함의는, 스미스가 북방 왕 주제에 대해 자신이 새로운 빛이라고 주장한 것을 소개할 때의 특징이라는 주제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에 관한 재림교회 논쟁의 흐름에 대한 개관을 마칠 때, 우리는 다니엘서 11장 10절의 의미와, 일곱 때에 대한 지식의 증가와 함께 1856년에 도착한 라오디게아 기별을 스미스가 거부한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우리의 믿음은 옳았다. 우리가 지나온 위대한 이정표들은 옮겨질 수 없다. 지옥의 군대가 그것들을 그 기초에서 뜯어내려 시도하고, 자신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승리를 자축할지라도, 그들은 성공하지 못한다. 이

진리의 기둥들은 영원한 산들과 같이 굳게 서 있으며, 사탄과 그의 무리와 사람들의 모든 노력이 합쳐져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그러한지 보기 위해 항상 성경을 살펴야 한다. Evangelism, 223.

예언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보여 주는 진리의 위대한 이정표들은, 그것들이 헐려 버리고 참된 빛이 아니라 혼란을 가져오는 이론들로 대체되지 않도록, 세심히 보호되어야 한다. 선택된 기별, 제2권, 101, 102.

이 시기에 성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는 많은 시도가 있겠지만,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서 못 하나도 옮겨서는 안 된다. 진리는 여전히 진리다. 확신을 잃는 이들은 그릇된 이론으로 떠밀려가고, 마침내 진리가 무엇인지에 관해 우리가 받아들인 과거의 증거를 불신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옛 이정표들은 보존되어야 한다. Manuscript Releases, 제1권, 55